

# 우리 학문의 세계 진출

조 동 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연구물 수출의 방안

우리 학문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맨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들고,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을 가장 나중에 드는 역행의 논의를 하기로 한다. 연구물 수출의 방안부터 제시한 다음에 연구물 제조의 방안을 찾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우리 학문의 연구 성과를 영어권 현지의 출판사에서 출판해야 널리 보급할 수 있다. 한국 출판사가 영어권의 중심지, 특히 뉴욕 같은 곳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국내의 본사와 공동출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을 내서 팔아야 하고, 비매품으로 하지 말

아야 한다.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입해 가게 해야 하고, 기증하지 말아야 한다. 판매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책은 내놓은 가치가 없다.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비매품을 만들어 기증한 책은 보지 않고 버리는 것이 상례이다.

영어권에서 먼저 시작한 일의 진척 상황과 성과를 살펴, 장차 영어권 이외의 다른 언어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출할 일이다. 프랑스어권, 에스파냐어권, 아랍어권 진출을 우선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어도 중요시해야 한다.

밖에 나가 우리 학문의 세계화를 위해 애쓰는 출판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재정 지원은 영업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에서 출판한 책을 판매한 부

수만큼 그 회사 국내 본사에서 공동출판한 책을 재정지원 기관에서 구입해서 국내에 배부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인 지원책이다. 그밖의 다른 지원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반드시 출판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 내놓을 우리 학문의 연구 성과의 영어 번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번역을 맡는 인원을 충분히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영어 또는 다른 중요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인 한국에 유학해서 한국학을 전공해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취직해서는 자기 나라에서든 한국에서든 희망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평생토록 마음 놓고 연구와 번역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구원이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연구하고 번역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활동급을 받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국제한국학연구원 같은 것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은 있으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가장 긴요한 일은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학문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건을 만들어야 가공하고 수출할 수 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대책은 쉽사리 세울 수 없으므로 다소 긴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연구 수출과 역행하는 학풍을 들어 비판하고,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을 그 다음에 제시하겠다.

## 연구 수출과 역행하는 학풍

한국에서 하는 사회학문의 연구성과를 수출할 만한가? 이에 관한 검토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단서를 마련하자. 나는 지금 여기서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것들을 인문학문·사회학문·자연학문이라는 서로 대등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풍과 연구성과를 비교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자연과학의 연구성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지도 않고 영어로 옮기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으며, 우리 학문의 수출품목에 들어가지 않으니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회학문과 인문학문을 비교해보는 것이 긴요한 관심사이다.

한국 사회학문의 각 분야인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은 유럽 문명권의 전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일거에 근대학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한다.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전통학문은 어떠했는가를 고려하지 않아 불필요한 혼선을 일으키지 않았다.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이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별난 관습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학문의 보편적인 시야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유럽 문명권에서는 자기 나라 현실을 중심에 두고, 이웃 나라를 위시한 자기 문명권의 자료로 그 주위를 싸고, 유럽 문명이 아닌 다른 문명권의 나머지 세계는 가장 멀리 두고 소홀하게 이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보편적인 인식의 길이라고 한다. 원근의 차이에 따라 세계를

그렇게 셋으로 나눈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거나, 그 셋을 대등한 비중이나 밀도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살피면서 차츰 멀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럽 문명권의 보편적인 인식을 한국이나 유럽 문명권 아닌 다른 문명권의 여러 나라에서 이식해보면 보편적인 인식의 내용이 원래의 것과 반대가 된다. 미국, 유럽 문명권, 그밖의 세계 순서로 고찰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가장 먼 곳부터 살피고 가까운 곳은 뒤로 돌린 것이 된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시점만 반대로 하니, 나타나는 모습이 아주 이지러져 있다. 유럽 문명권에서 원래 가장 중시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유럽 문명권의 사회학문을 이식해온 학문에서는 가장 멀리 둔다. 자기를 멀리 두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학·경제학·사회학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다루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반론 제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학·경제학·사회학은 대상에 따라서 구분한 학문이 아니고, 시각에 따라서 구분한 학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를 다루는 시각, 그것을 학문의 언어로 구체화한 이론이나 방법은 유럽 문명권 것에서 추출하고 검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현실에다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으로서는 한국의 것을 중요시한다 해도 우리 학문이 아니고 남의 학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현실에 관해서 말할 때에는 신문 기사로 오르내리는 것, 관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식견이 없기 때문에 행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입해온 이론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틀을 만들고 난해한 개념을 구사해서 학문하는 것 같은 거동을 보인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속이다가 자기 학문을 망친다. 미국에서 새로 유행하는 이론이면 무엇이든지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인식의 틀을 잘못 가져와서, 현실 인식을 오도하고, 정책이 그릇되게 하고, 본의 아니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세계 여러 곳의 많은 학자들이 자기 자기 시각에서 보편적인 인식을 정립한 성과를 풍성하게 내놓고 서로 비교하고 토론하면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학문은 자기 학문을 하지 않고 남의 학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참가해서 발표할 거리가 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문명권이 아닌 다른 문명권의 사회학문이 거의 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세계학문의 바람직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근대와 더불어, 유럽 문명권 근대학문의 일방적인 팽창 때문에 빚어진 세계사의 비극이다.

유럽 문명권 이론을 가져와서 토착화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우리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극제로 삼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회마다 그런 문제를 두고 학술회의를 열어, 열띤 주제발표를 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한 경과를 몰라서 엉뚱한 논의를 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언제나 서론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그치는 감독의 말을 풍성하고, 스스로 나서서 실행하는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학문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이론을 고쳐야 한다. 유럽 문명권에서 내놓은 이론 가운데 더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조하는 데 적용하자는 논란은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에서 벗어나 있다. 제1세계의 사회학문보다 제2세계의 사회학문이 더욱 바람직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해서 이론 창조의 과제를 미루어두게 하는 작용을 했다.

이론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학문과 만나야 하고, 철학 또는 학문학(學問學)의 유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한문을 모르고, 동아시아 또는 한국의 전통학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 실학으로 성리학을 극복했다고 하는 속설에 현혹되어 실학시대에 氣 철학이 새롭게 전개된 것을 알지 못해, 학문론 쇄신의 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

식민지시대에서 자립화시대로 넘어오는 진통을 철저히 겪지 못하고, 학문의 자립화를 위해 투쟁한 경력이라고는 없이 세계화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사회학문의 모습이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설하고, 미국의 압력이 어떻게 들이닥쳐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후기 산업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해설할 수 있다고 해서 세계화시대의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의 방조자나 해설자가 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며 세계학문 발전에 적극 동참하면서, 바람직한 미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 새로운 작업의 방향 설정

인문학은 실용성이 없는 학문이어서, 배우고 가르치는 데 소요되는 노력이 헛되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인기가 없어, 인문학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많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국문학·국사학·한국철학 같은 국학 분야 인문학은 민족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이나 수행하는 데 그치지, 힘써 돌볼 필요가 없고, 춥고 배고픈 학문으로 남겨두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학문경쟁에서는 뒤떨어지게 마련이고, 세계화시대에는 퇴색되지 않을 수 없으니, 구제불능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회학문의 수입학과 정면에서 비교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인문학문의 의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우리 학문의 세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밝힐 수 있다. 한국의 언어, 문학, 역사, 사상 등에 관한 기본자료와 그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해설을 외국어로 옮겨 밖으로 내보내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문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는데 기인한다. 모든 수출이 다 그렇듯이, 학문 수출에서도 세계 여러 곳에서 원하는 것을 내보내야 한다. 우리 학문이 그 방향이나 내용에서 세계가 원하는 학문일 때에만 우리 학문이 세계화된다. 인문학문에서 그렇게 하는 일을 선도해야 한다.

인문학문은 다른 한편으로 민족국가끼리

의 경쟁에 직접 봉사하는 실용성을 넘어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오늘날의 편견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미래를 이룩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 구실이 더욱 긴요해진 시기에 이르렀으므로, 인문학문의 분발이 요망된다. 근대화와 더불어 계급모순 해결이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자,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데 힘쓰는 사회학문이 크게 행세하고, 인문학문은 현실문제와 동떨어진 학문으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이제 계급모순 대신에 민족모순이 격심해져 세계사의 새로운 위기를 조정하고 있다. 문화전통이나 신념체계의 차이가 깊이 개재된 민족모순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인문학문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지구상에서 싸워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모두 민족모순의 희생자들이다. 계급모순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완화되었고, 계급모순의 완화와 더불어 민족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계급모순을 폭력혁명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마르크스주의는 폭력혁명을 막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로 계급모순을 완화하도록 하는 반작용까지 불러와서 계급모순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 반면에 민족모순을 격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레닌주의 노선에서는 민족모순은 계급모순의 변형된 형태이므로 계급모순을 해결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민족모순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곳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가 붕괴된 곳이다.

무리한 처방 때문에 민족모순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폭발적인 참사를 빚어내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전혀 갖추지 못한, 민족모

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학문의 시급한 과제이다. 그 작업은 사회학문 대신에 인문학문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인문학문에서 인문학문과 사회학문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사회학문도 기여할 수 있다.

남·북 통일을 이룩하고, 한·일 간의 갈등을 넘어서며, 동·서 문명의 충돌을 해결하고, 제1세계·제2세계·제3세계의 대립을 극복하는 방안을 우리 인문학문이 주도해서 제시해야 한다. 세계 모든 민족이 서로 정당하게 경쟁해 피차 도움을 주면서 인류 화합의 조화로운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인문학문이 사회학문이나 자연학문보다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문학문에서 사회학문이나 자연학문의 문제까지 받아들여 총괄적인 학문학을 새롭게 이룩하고, 문화 창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해야 한다.

자연학문뿐만 아니라 사회학문도 유럽 문명권 근대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유럽 문명권의 우위를 줄곧 입증하고 있다.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자연학문이나 사회학문이 유럽 문명권 의존에서 벗어나고 유럽 문명권과 다른 길을 택해 유럽 문명권보다 앞서 나가기 어려운 근본적인 어려움이 바로 거기 있다. 그런데 인문학문은 고대에 연원을 두고, 중세에 출현했다. 중세 학문의 체질이 남아 있어 근대에는 크게 떨치지 못했으나, 이제 근대를 극복하고 다음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으므로, 인문학문이 새로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한국 또는 동아시아는 유럽 문명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 인류의 지혜를 유럽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성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이

나 경제적인 번영에서도 오히려 앞섰다. 이제 우리가 그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면서 인문학문을 발전시켜야 유럽 문명권 중심 학문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다원화를 발전과 조화의 근거로 삼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선도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학문에서는 그런 줄 모르고 있으며, 사회학문 또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럽 문명권의 학문을 추종하기만 한다. 이제 인문학문 발전의 새로운 성과에 자극받고, 인문학문에서 다시 이룩하는 학문총괄론에 힘입어, 사회학문이나 자연학문도 유럽 문명권 의존을 청산하고 동·서 문명 화합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민족모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인문학문은 지금 방법론 위주의 학문이 되어 있는 사회학문과는 다르게, 내용 위주의 학문이어야 한다. 자기 학문 특유의 엄밀한 방법을 갖추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사실에 입각해서 밝히는 것이 특히 긴요한 과제이다. 경제학이 학문이 되면서 근대학문이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종교학이 학문이 되어야 근대 극복의 학문이 시작된다. 경제학은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것과 다르게, 종교학은 종교적 신념에 얽힌 제반 문제를 총괄해서 다루는 열린 학문이어야 한다.

나와 남이 함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의 논리를 찾아내서, 투쟁과 화합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밝혀야 근대학문을 넘어설 수 있다. 나의 주체성 때문에 남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나와 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점은 덮

어두고 공동점만 부각시키고, 투쟁은 그만두고 화합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투쟁이 화합이고 화합이 투쟁이고, 생성이 극복이고 극복이 생성임을 이론과 실천에서 밝혀 논하는 生克論으로 그 두 가지 잘못을 한꺼번에 시정해야 한다. 서로 거의 같은 주장을 하는 종교끼리 처절한 싸움을 벌인 과거의 사례는 화합이 투쟁임을 입증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종교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벌인 다른 면이 있어 투쟁이 화합이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고,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이 화합이기 때문이지만, 화합을 지나치게 숭상하는 것은 충돌의 원인이 된다.

##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 학문의 수출품은 우리 문화의 유산을 세계에 일방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준에서 크게 넘어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 학문이 곧 세계학문일 때에만 우리 학문이 세계화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의 고민거리인 문제를 우리가 연구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업적이라야 세계에 내놓아 크게 환영받을 수 있다.

그런 연구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인문학문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데 힘써야 한다. 사회학문에서 주도해온 학문수출입국에 의한 우리 학문의 식민지화를 정면에서 뒤집기 위해서 국학 분야 인문학문이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학문수출입국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데 그치

지 않고, 유럽 문명권에서 마련한 근대학문을 극복하고, 문명의 충돌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서 세계학문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더 큰 일을 보람있게 성취해야 한다. ■

조동일/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대, 영남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교수를 지내고 현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문학통사』,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 『우리 학문의 길』, 『세계문학사의 허실』 외 30여 권을 발표하였다.

##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